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입지 및 발달에 관한 연구*

백 영 기**

요약 :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입지와 발전은 경제적 요인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전략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해외 수출 시장에서의 접근성에서 수도권과 남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대단위 주요 산업단지의 입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공업체계의 주변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 발달이 급속히 진행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역 경제의 구조 변화는 물론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여 전북의 제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산업단지의 발달은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의 중심인 전주, 익산, 군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전라북도,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입지, 국가의 역할, 공간정책, 제조업, 공간적 집중

1. 서 론

상이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달하는 생산활동은 결코 공간상에서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 생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공간적 차원에서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으로 대조되는 불균등한 공간구조가 출현하고 있다. 생산활동의 입지가 공간상에 편중되는 대표적 요인의 하나로 집적경제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서비스 활동과 하부

구조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집적의 이득은 분명히 중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수많은 국가 및 지역 정부들이 산업 발달의 중심이 될 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입지의 발달 과정을 분석할 때 집적효과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적효과에 의한 설

* 본 논문은 2000년 전북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명은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간의 거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압축될 수 있다. 거래 관계의 성격에 따라 야기되는 기업의 조직구조 변화와 시장 및 노동과의 관계 등은 산업입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고는 기업이 사회 속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 입지는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입지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투자자, 정부 등과 같은 행위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Bale, 1974a; Pratt, 1994). 또한 토지이용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각종 규범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생산활동의 실제 입지의 발전은 생산조직의 구조변화로 한정된 분석의 틀을 넘어 생산입지가 제공되는 조건을 포함하는 폭 넓은 사회 전체의 성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¹⁾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케인즈 이래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특히 제삼세계 국가에서는 생산공간의 계획적 조성을 통한 공업화가 지역개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Norcliffe, 1985; Chandra, 1992). 이들 산업단지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산업자본, 지역주민 등의 요구가 서로 조화되거나 상충되는 여건에 직면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지속되었던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재원을 할당하고 조달하는 역할을 국가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 있었다(Chung, 1990; Chowdhury and Islam, 1993). 즉 국가는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직접 생산공간의 개발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공업생산의 지리를 형

성하는 중요한 동인이었다(Markusen and Park, 1993).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산업입지 변화를 이해하는 데 생산변화에 따른 입지요인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산업용 공간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생산활동의 실질적 입지가 계획된 개발토지에서 발생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제조업 입지 및 발달의 설명에서 산업단지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입지결정자의 이해는 그 안에 입주할 개별사업체 입지 결정자들의 이해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양자는 상이한 동기와 전략을 가지고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Bale, 1974a). 즉 산업단지의 최종 입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들 행위 주체들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산업활동 공간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자본주의 경제의 상품이다. 오늘날 소비를 전제하지 않고 상품을 생산할 수 없듯이 산업용 공간의 생산 역시 소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산업용 공간의 생산은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사고는 산업입지와 발달을 경제적 변수만이 아닌 폭 넓은 사회적 성격 속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즉 공간을 사회나 경제의 결과를 담는 용기로 간주하였던 전통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공간과 사회는 별개가 아니라 상호관련을 갖으며 서로 간에 매개이며 동시에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지리학자들은 물론 일부의 사회과학자들도 공간과 사회, 경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제조업 활동을 주도하는 산업단지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고, 산업단지의 입지, 형태 및 규모 등의 성격을 조사한다. 또한 생산조직 및 체계의 최근 변화와

연관시켜 이들 산업단지의 발달을 전북 제조업의 변화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발달에 이들 산업단지의 역할을 평가 조망하고자 한다. 비록 전라북도 지역은 국가적 산업발달의 주변부에 속해 있지만, 최근 자본축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리적 유리함을 갖고 있으며 지역내의 투자의욕도 크게 고취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발달이 미진한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 발달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새로운 여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미를 둔다.

2. 전북 산업단지의 개발 과정

1) 최초의 개발 배경

한국에서 공업입지의 발달이 공공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 공급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형태를 띤 것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출현하였다. 경제발전 초기단계 상황에서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효율적인 공업화를 통해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공업화 전략으로서 산업생산을 위한 공간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추구하였다(Hong, 1997; 국토개발연구원, 1998).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제한된 자본을 능률적으로 투자하여 공업화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비롯한 산업기반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노동력과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과 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 지역을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운송기능의 중추적 역할이 되었던 경부선과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된 부산과 인천을 있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서 우위에 있었다. 또한 지역간 자원배분을 의미하는 지역간 산업단지의 배치문제는 사회정치적 과정 속에 이해할 면도 있다(Chung, 1990). 1961년부터 시작된 박정희 정권(1961-1979)은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으로 부상되었지만,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참여가 적었던 호남지역에 속한 전북은 경제발전의 뒷전에 남게 되면서 산업단지개발 입지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면도 고려될 수 있다(원도연, 1995).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정권은 풍부한 저임금, 저숙련의 노동력을 이용한 공업화를 통해 세계 시장의 개척 가능성을 믿고,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을 수립하였다(Amsden, 1989). 이 무렵 제정된 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 등은 이 수출지향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초기 대단위 산업단지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으로 국제교역에 유리한 임해 지역이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밖에 없었다(Robinson, 1985). 따라서 항만의 하역능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던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개발 투자에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되어 투자를 유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표 1). 이 시기에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1965)가 서울에 입지하였고,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또한 정부주도의 제철산업이 영남권의 포항에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농업 경제가 중심이었던 전라북도는 국토의 중심인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축에서 떨어져서 이곳 중심지역과는 낙후된 호남

선 철도에 의해 겨우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내부 도로망도 식민지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 고작으로, 1973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외부 지역과의 연결망이 점차로 개선되었다(그림 1). 결국 산업단지 개발 초기에 산업기반시설이 열악하였던 전북은 국가의 공업화 정책 실천에서 배제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업 발전에서 주변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2) 초기의 산업단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경제는 과거 경공업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었고,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이 요구되었다. 중화학공업을 위한 입지로는 경공업이 발달한 기존의 도시입지가 아닌 지역이 우선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년)이 제정되었다. 이는 하비(Harvey, 1982)가 언급한 공

간적 조정(spatial fix) 과정의 단면이라 볼 수 있다. 1970년에 제정된 지방공업개발법과 함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던 제조업 활동이 지방으로 분산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한국토지개발공사, 1988). 이러한 배경에서 전북 최초의 산업단지인 전주지방산업단지가 1960년대 말에 지정 조성되었고, 1973년 이리수출자유지역과 이리지방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전북의 산업단지 입지를 구별하기 위해 그림 2 참조).

그러나 이들 초기 산업단지 개발이 1970년대 전북의 공업발달을 위한 발판이 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국토개발연구원(1998) 자료에 의하면 1970년과 1980년 사이 10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115만 정도의 제조업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었는데, 그 중에 53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그리고 52만 명 정도가 영남권에서 창출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 두 지역에 입지한 국가산업단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973년 지정된 익산(이리)수출자유지역은 1969년부터 개발된 마

표 1. 주요 항만의 하역능력 변화

(단위 : 천톤)

구분	1966	1971	1981	1991	1996
인천	1,420	1,420	9,728	24,829	45,275
군산	540	540	1,540	3,006	3,602
목포	443	443	1,000	2,016	3,226
여수	681	698	1,698	2,485	2,663
마산	670	703	3,030	6,118	8,340
부산	4,990	5,740	15,000	53,862	55,892
울산	500	1,312	2,657	14,208	19,221
포항	360	360	24,175	45,369	38,864
기타	2,600	4,656	20,361	67,208	73,284
전국	12,204	15,872	79,189	219,101	250,367

자료 : 해운산업연구원, 해운통계요람, 각 연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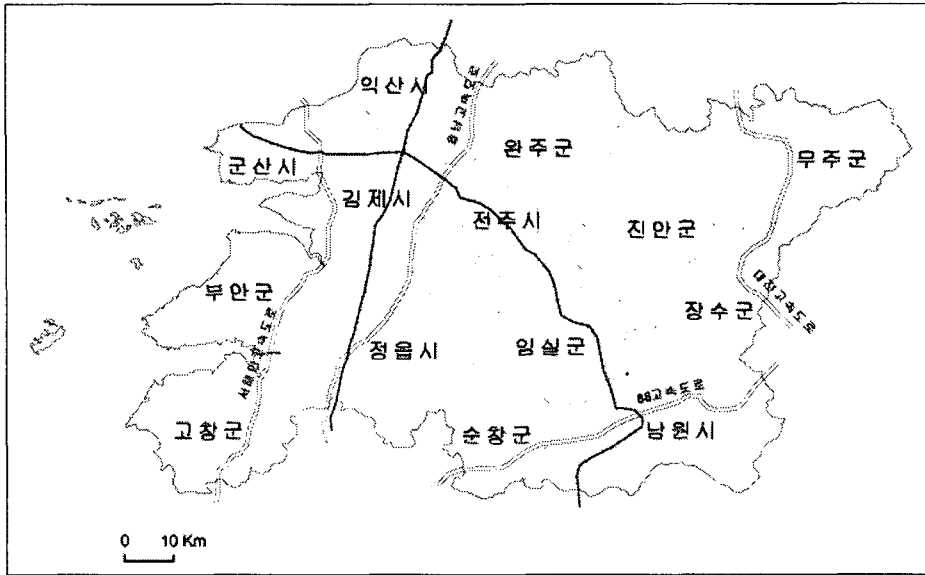


그림 1. 전라북도의 시군 경계와 주요 교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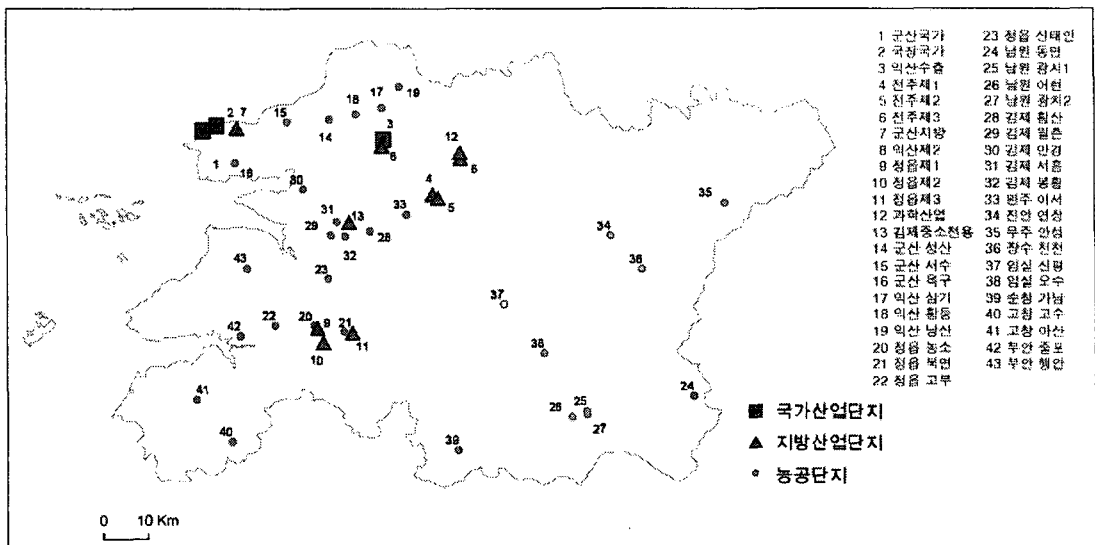


그림 2.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산수출자유지역과 비교해 국가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직 미미하였다.²⁾ 이 시기에 산업단지에 의한 제조업의 지방 분산화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의 초기 단계였던 1980년 이전 전북의 공업 실태는 전북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조사하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80년까지 전북 고용 구조를 보면 농업 중심의 1차 생산할

표 2.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고용구조변화(1975-1980년)

(단위 : 명, %)

산업별	1975			1980		
	전라북도		전국 (%)	전라북도		전국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농림어업	679,305	70.6	49.0	500,327	64.4	37.8
광업	2,985	0.3	0.7	2,090	0.3	0.7
제조업	76,268	7.9	17.4	69,550	9.0	22.1
전기가수수도사업	1,583	0.2	0.3	1,757	0.2	0.3
건설업	17,866	1.9	3.8	25,615	3.3	5.2
도·소매업	81,181	8.4	13.4	76,794	9.9	16.2
운수창고	19,509	2.0	3.4	21,103	2.7	4.3
금융보험	4,759	0.5	1.2	6,648	0.9	2.3
사회·개인서비스	78,733	8.2	10.8	72,421	9.3	11.1

자료 : 통계청 시도별/경제활동별 취업자수, 해당연도

동이 전체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에는 70%를 넘었고, 1980년에는 65%에 달하고 있다(표 2). 이는 같은 부문 전국 비중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로서 전북지역 경제의 중심이 농업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반면에 농업 외의 다른 업종들 모두가 지역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동일 업종의 전국 비중치 보다 작고, 특히 전북의 제조업 활동의 비중치는 전국의 제조업 비중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업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이 미약한 전북 지역의 산업구조는 열악한 산업 기반시설 조건과 맞물려서 1980년 이후에도 산업단지의 개발에서 여전히 주변부로 남게 되었다.

3)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대안

1980년대에 이르러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위주의 공업화가 국토발달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공간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더욱이 1970년 후반까지 세계경제의 장기적 불황이 계속되고 수출감소에 따른 전국적 공업발달의 성장속도가 극히 둔화되자,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의 산업정책은 과잉 중복 투자와 국외 경쟁의 심화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중화학공업 부문을 보다 합리화 하고, 기술 집약적인 부문을 향상시켜 생산성의 증대를 꾀하게 되었다(김건, 1991; 최병두, 1994). 이러한 여건에서 국토개발정책은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대도시로의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수도권과 영남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이전에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의 개발 역량 구축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개발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조업 기반을 전국적으로 분산을 유도하면서 전북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지역간 불균형 문제로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지역과 이외의 다른 지역과의 격차 이외에도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개발정책은 농촌 공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에 농가이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도농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고, 전북의 농촌지역에도 군 단위별로 농공단지의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의욕적이지만 무분별한 농공단지 입지 결정은 농공단지 내의 높은 휴·폐업을 초래하게 되었다(백영기 외, 1993).

최병두(1994)는 1980년대를 국가적으로 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공간구조가 급속하게 재편된 시기라고 본다. 이 기간동안에 전북 역시 대다수의 산업단지 입지가 결정되고 개발이 수행되었다.

1970년대 말에 군산지방산업단지와 정읍제1산업단지(정주중소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전북의 근대적 공업은 이전에 개발된 세 산업단지와 더불어 이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작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백영기·김진석, 2000). 이어서 1980년 중반부터 전주제2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1987년 군산국가산업단지, 1989년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신규로 지정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그림 3 참조).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농공단지의 개발이 행정 관료들의 실적주의와 지역주민들의 경쟁의식 때문에 각 행정구역마다 한 개 이상의 단지들이 조성되게 되었다.

4) 정착화 단계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국가의 산업입지 정책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산업입지발달에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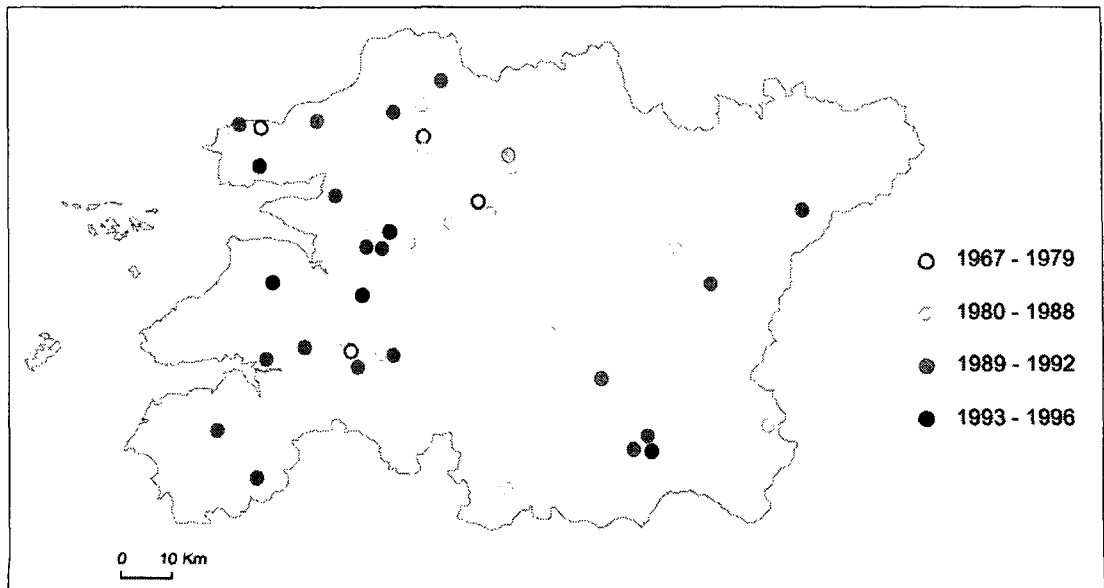


그림 3.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지정시기

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에게 자율과 책임을 줌으로써 지역간 경쟁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공업단지 관련 법을 단순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³⁾.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이 때부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교역 증대가 전망되면서 이미 지정된 군산, 군장,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1990년 이후 새로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로 정읍, 3 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김제 중소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가운데 전주과학과 김제 지방산업단지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기업 입주실태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전주의 외곽지역에 입지한 전주과학산업단지는 기술집약적 첨단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 개발되었지만, 현재의 실태는 이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이 첨단기술산업에 적합하였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전라북도에는 국가산업단지 3개, 지방산업단지 10개, 농공단지 30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성이 완료되었다. 이들 산업단지의 유형별로 전국의 산업단지

와 비교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표 3). 산업단지 면적 규모에서 보면 전북은 단지 유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단지의 비중이 전국에서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전국 비중은 각기 10%에 거의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등에서 전북 산업단지의 전국에서의 비중은 면적 비중에 훨씬 못 미쳐 효율성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량 등이 면적 규모에 비해 아주 낮아 이제 겨우 조성되고 있는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체수에 비해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유형 역시 수출액을 제외한 다른 척도들에서 면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 생산성과 고용 창출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농공단지 역시 면적에 비해 업체 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비교적 소규모의 생산조직이 이곳에 입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표 3.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현황(2001년)

구분	면적(천m ²)		입주 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백억원)		수출액(백만불)						
	전북	전국	%	전북	전국	%	전북	전국	%	전북	전국	%			
국가	21,436	414,968	5.2	209	13,858	1.5	7,467	544,116	1.4	14,042	19,372	0.7	555	71,899	0.8
지방	20,243	208,278	9.7	480	9,041	5.3	24,356	328,420	7.4	64,690	7,615	8.5	1,988	18,723	10.6
농공	4,534	45,653	9.9	453	4,289	10.6	9,292	105,073	8.8	15,093	1,761	8.6	347	3,681	9.4
합계	46,213	668,899	6.9	1,142	27,178	4.2	41,115	977,609	4.2	93,825	28,749	3.3	2,890	94,303	3.1

주 : %는 전북/전국의 퍼센트 값을 나타낸다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1

3. 전북 산업단지의 발달 영향

1) 산업구조 변화

전북의 산업단지개발이 지역경제, 특히 지역 제조업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이 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전북 고용 구조는 산업단지 개발 초기와 유사한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산업단지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증가되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표 4). 1990년 전북 경제의 고용구조는 1980년에 비해 농림어업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제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표 1참조). 비록 2000년에 이르러서도 전라북도는 여전히 농업이 전체 고용의 30% 이상을 차

지하는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198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20년 동안 농업의 고용 비중은 절반이 되었다. 제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전국의 비중에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제조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전국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1980년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기간동안에 전북 제조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전국 제조업의 평균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에 전북의 건설업, 금융보험업, 및 사회·개인서비스의 비중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져서 전북의 고용구조가 제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전북 산업구조를 조사하면, 이 지역 경제의 특성과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볼

표 4.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고용구조변화(1990 - 2000년)

(단위 : 명, %)

산업별	1990			2000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전국
	종업원수	(%)	(%)	종업원수	(%)	(%)
농림어업	364,217	48.7	20.8	245,968	32.2	13.1
광업	1,196	0.2	0.4	1,072	0.1	0.1
제조업	93,624	12.5	27.4	99,739	13.1	21.3
전기가스수도사업	2,368	0.3	0.4	2,386	0.3	0.5
건설업	32,871	4.4	7.1	49,804	6.5	7.3
도소매업	100,730	13.5	19.3	92,312	12.1	15.7
음식숙박업				47,550	6.2	7.5
운수창고	31,765	4.3	5.2	31,106	4.1	4.8
통신업				6,951	0.9	1.2
금융보험	21,573	2.9	5.3	25,518	3.3	3.7
부동산사업서비스				20,971	2.7	6.2
사회·개인서비스	98,169	13.2	14.1	139,612	18.3	18.7

주 : 1995년 이전까지는 음식숙박업, 통신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에 대한 개별자료는 발표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시도별/경제활동별 취업자수,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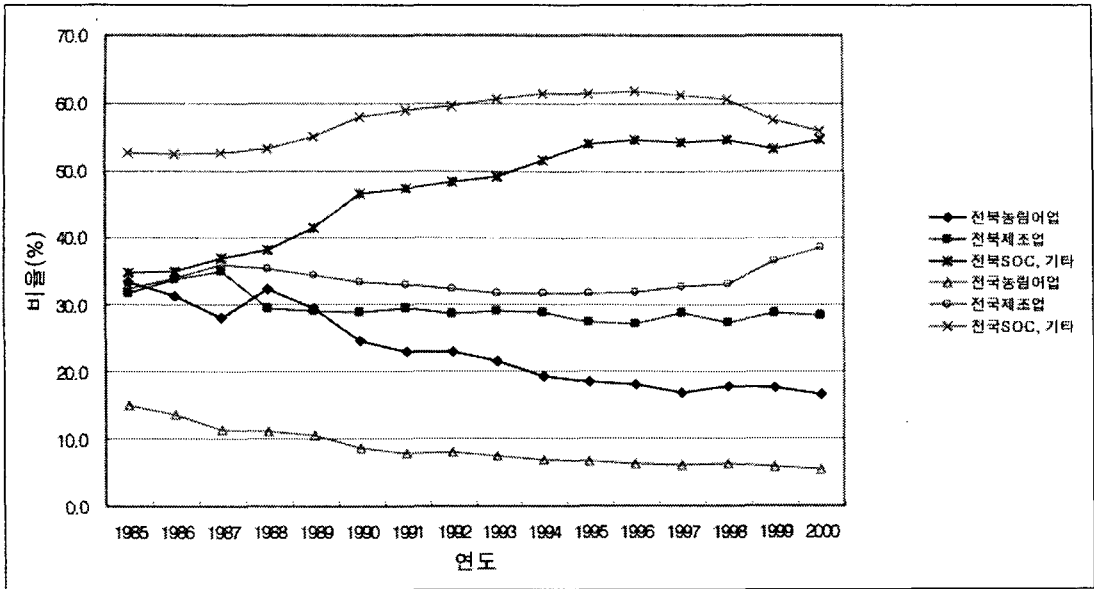


그림 4.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의 변화(1985-2000년) (지역 내 총생산)

수 있다. 1990년까지 전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은 전북 지역총생산의 25% 정도에 불과하고,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20%를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4). 반면 이 기간동안에 전북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0%를 겨우 상회하고 있지만,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제조업이 지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을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전북 제조업의 발달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에는 전국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생산면에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만, 전북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 시기와 거의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이는 최근 전북의 제조업 생산성이 전국 제조업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생산성이 높은 첨단기술분야

의 투자가 취약한 전북 공업구조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전북 산업구조가 전통적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뚜렷하게 전환하고 있어 이 지역경제가 견실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산업단지 개발 이후 전북 지역 경제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들 산업단지가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 규모와 사업체수에 의한 특징을 전체 제조업과 비교하여 제조업 내에서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표 5). 이 비교 조사는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3년과 최근 2000년의 자료를 기초하였다. 1993년에 전북의 산업단지는 사업체수에서는 전체 제조업체수의 39%를 차지하지만 고용면에서는 50%를 웃돌고 있어 전북 제조업 발달에서 산업단지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단지 유형별로는 지방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고용의 26.4%로 가

표 5.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변화(1993-2000년)

구 분	1993년						2000년						
	면적 (천 m ²)	사업 체수	%	종업 원수	%	사업체 평균 규모	면적 (천 m ²)	사업 체수	%	종업 원수	%	사업체 평균 규모	
산업 단지	국 가	24,110	163	8.1	10,592	14.8	65.0	24,171	229	11.1	9,784	13.4	42.7
	지 방	16,876	279	13.9	18,967	26.4	68.0	20,019	475	22.9	24,620	33.8	51.8
	농 공	3,907	339	16.9	7,608	10.6	22.4	4,533	431	20.8	9,769	13.4	22.7
	소 계	44,893	781	39.0	37,167	51.8	47.6	48,723	1,135	54.8	44,173	60.7	38.9
전북	제조업		2002	100.0	71,801	100.0	35.9		2,072	100.0	72,827	100.0	35.1

주 : 면적(천m²), 사업체수(개), 종업원수(명), 사업체평균규모(명)

자료 : 전북통계 <http://chonbuk.stat.go.kr> 2000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순이었다. 이러한 고용 비중은 2000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사업체수와 고용면 모두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새로운 투자계획 입지인 이들 산업단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업체 평균 규모에서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내의 사업체 규모가 전북 전체 평균 규모보다 훨씬 커서 산업단지 내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점을 보인다. 이것은 대단위 산업단지 내의 거대 공장이나 업체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업체의 평균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포스트 포디즘에서 주장하는 생산의 유연성이 조직변화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하는지 모른다(Scott, 1992). 그러나 농공단지 업체의 규모가 전체 제조업 평균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곳에 입지한 기업의 영세성에 의한 것이다(백영기 외, 1993).

2) 제조업의 변화

전라북도 제조업 발달에 산업단지가 크게 기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제조업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산업단지가 제조업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1990년대 이후의 전북의 제조업 고용구조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였다. 전북 제조업에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수가 제조업 총고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분석은 의미가 있다.

1990년대 초까지 전라북도 제조업 내에서 전국 비중을 능가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음식료품, 섬유, 의복, 종이제품, 목재,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등으로 이들 부문을 모두 합한 종업원수가 전북 제조업 총종업원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에 기여한 순으로는 의복, 섬유,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종이제품, 화학제품, 목재 부문으로 열거된다. 이때까지는 농촌 노동력이 풍부하게 유입되어, 노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채용과 해고와 같은 노동력의 실천에 유연성을 지녔던 지역 여건이 전북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격한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대표

적 부문이 섬유와 의류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도 이들 부문의 쇠퇴는 쉽게 예상되는 것이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1990년대 초에 주요 업종 가운데 섬유 부문이 전국의 평균 이하로 쇠퇴하고, 반면에 자동차 부문이 새롭게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고용 규모 면에서 중심 업종으로 자동

차, 음식료품, 의복,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섬유, 통신장비 순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가 전북의 새로운 최고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였고, 1990년 주요 업종에 속하였던 종이제품, 목재 부문이 제외되었다. 이들 7개의 주요 업종의 종사자의 총합은 전북 전체 종업원수의 54.3%로, 1990년의 7개의 주요 업종 종사자의 비중보다 훨씬 낮다.

표 6. 전국대비 전라북도 제조업 업종별 고용구조의 변화(1991-2000년)

(단위 : 명, %)

제조업종 분류별	1991				2000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종업원수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15 음·식료품	9,863	12.4	200,173	6.9	10,232	14.1	177,723	6.7
16 담배	815	1.0	6,855	0.2	0.0	0.0	3,104	0.1
17 섬유제품	10,862	13.6	339,697	11.6	5,650	7.8	232,188	8.8
18 의복 및 모피제품	17,575	22.1	211,278	7.2	8,281	11.4	152,523	5.7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858	1.1	179,668	6.2	0.0	0.0	52,862	2.0
20 목재 및 나무제품	3,549	4.5	42,674	1.5	1,801	2.5	26,399	1.0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210	6.5	65,161	2.2	3,678	5.1	56,508	2.1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940	1.2	74,275	2.5	809	1.1	87,455	3.3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	0.0	9,832	0.3	0.0	0.0	11,606	0.4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4,753	6.0	142,968	4.9	5,891	8.1	136,784	5.2
25 고무 및 플라스틱	1,473	1.9	125,291	4.3	2,399	3.3	158,811	6.0
26 비금속 광물제품	7,751	9.7	137,965	4.7	5,746	7.9	84,627	3.2
27 제1차 금속산업	927	1.2	120,624	4.1	2,269	3.1	103,898	3.9
28 조립금속제품	2,053	2.6	153,989	5.3	2,273	3.1	183,219	6.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570	2.0	268,372	9.2	3,144	4.3	279,844	10.5
30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136	0.2	25,353	0.9	575	0.8	50,064	1.9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553	3.2	107,750	3.7	1,563	2.2	139,722	5.3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782	4.8	273,861	9.4	4,587	6.3	279,642	10.5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98	0.6	45,423	1.6	571	0.8	46,486	1.8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01	0.9	182,989	6.3	11,053	15.2	203,952	7.7
35 기타 운송장비	176	0.2	68,508	2.3	53	0.1	94,392	3.6
36 가구 및 기타	3,563	4.5	134,134	4.6	1,926	2.7	85,973	3.2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5	0.0	1,175	0.0	92	0.1	4,808	0.2
합 계	79,613	100.0	2,918,015	100.0	72,593	100.0	2,652,590	100.0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서, 1991, 2000

이는 전북 제조업 내의 업종 구성이 다양화 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백영기·김진석, 2000).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에 산업단지의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북의 산업단지 내의 업종별 고용 규모를 전북 전체의 제조업 고용 구조와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단지 내의 업종별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1998년 시점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1998년 산업단지 내의 고용비율을 제조업 내의 비중과 비교한 값(표 6의 A/B 값)을 보면, 이 값이 높은 업종은 화학물 및 화학제품, 1차금속, 조립금속, 기타 기계, 기타 전기기계, 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자동차, 화학물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전국 대비 전북에서 특화 된 업종이 아닌 새롭게 성장하는 부문으로, 음식료품, 섬유, 의복, 종이제

품, 목재와 같은 이전의 전북 지역 주요 업종에 비해 새로운 기술혁신과 숙련성을 많이 요구하는 생산활동이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업종이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전북 제조업 발달의 중심에 산업단지가 위치하면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전북 제조업을 주도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3) 공간적 특징

전북지역의 제조업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의 세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곳의 제조업 활동을 이들 산업단지가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5). 반면에 농공단지만이 입지하고 있는 시군 지역은 제조업 활동이 극히 저조하고 변화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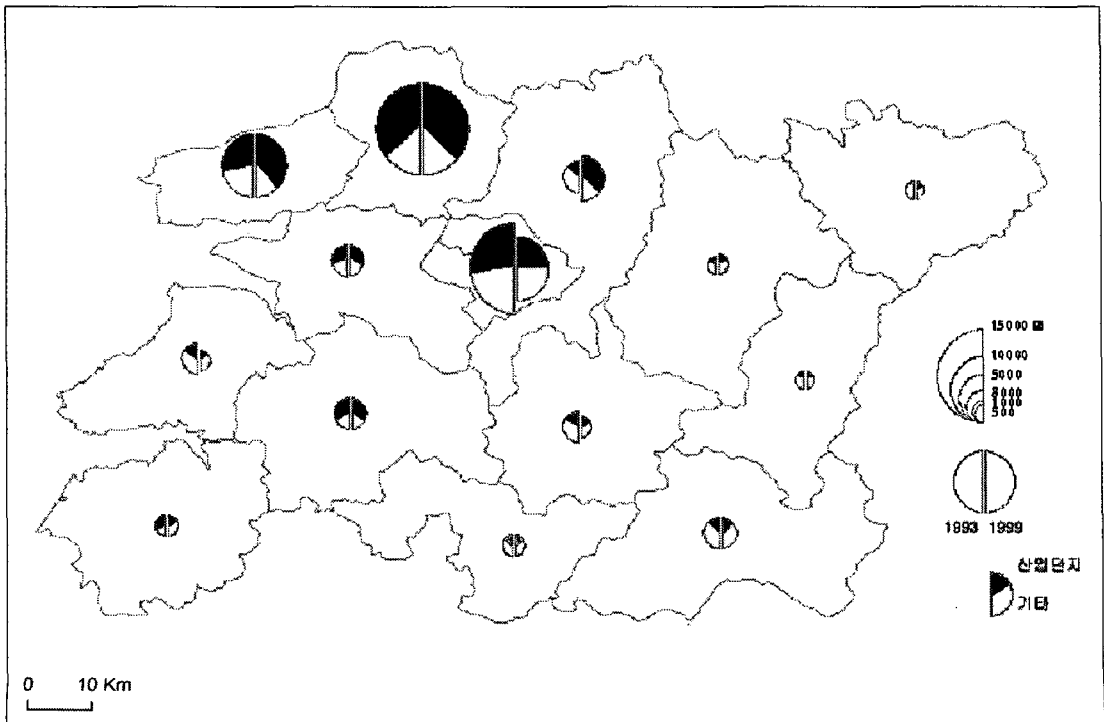


그림 5. 시군별 제조업 종업원수에서 공단 비중의 변화(1993-1999년)

표 7. 전북대비 산업단지의 업종별 고용구조(1998년)

(단위 : 명, %)

제조업중분류별 업종	산업단지 ^{a)}		전라북도		비
	종업원수	% (A)	종업원수	% (B)	A/B
음·식료품	1,997	6.5	10,757	15.2	0.4
섬유 및 의복 제품 ^{b)}	4,284	13.9	13,969	8.2	0.7
목재 및 나무제품	489	1.6	1,581	2.2	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538	5.0	3,801	5.4	0.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6	0.0	890	1.3	0.0
화학물 및 화학제품	3,818	12.4	5,083	7.2	1.7
고무 및 플라스틱	854	2.8	2,463	3.5	0.8
비금속 광물제품	1,712	5.5	5,665	8.0	0.7
제1차 금속산업	1,608	5.2	2,366	3.3	1.6
조립금속제품	1,543	5.0	2,098	3.0	1.7
기타 기계 및 장비	2,253	7.3	3,012	4.3	1.7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27	0.1	479	0.7	0.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133	3.7	2,026	2.9	1.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38	3.0	4,074	5.8	0.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0	0.5	497	0.7	0.7
자동차 및 운송장비 ^{b)}	7,777	25.2	9,924	13.9	1.8
가구 및 기타	692	2.2	1,878	2.7	0.8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28	0.1	78	0.1	0.8
합 계	30,847	100.0	70,641	100.0	1.0

주 : a)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제외한 자료 ; b) 자료 수집에서 두 부문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통합하여 처리함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01년 자료를 저자가 정리

의 없다. 두 곳의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군산지역의 제조업 활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최근에 조성되어 입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1993년에서 1999년 기간동안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있음은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다만 특이 한 것은 전북의 최대 도시인 전주의 제조업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반면에 주변 완주군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하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의 교외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백영기·김진석, 2001).

전북 제조업의 공간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대단위 산업단지 내의 주요 업종을 조사하였다. 전주시에 입지한 두 개의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업종은 섬유, 기타 기계, 펄프, 화학제품 등으로 이 가운데 섬유와 펄프는 최근 쇠퇴하는 업종으로 이 부문의 쇠퇴가 전주시 제조업의 쇠퇴를 유도하고 있다(표 8). 한편 제조업 성장이 두드러진 완주군에는 전주제3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 곳에는 자동차,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이 주요 업종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있는 군산시의 산업단지에는 자동차, 비금속, 1차금속, 음식료품, 화학제품

표 8. 전라북도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

산업단지명	대표 업종	주요 업종
군산 국가	자동차	
익산 수출	섬유, 기타기계	기타 전기기계
전주 제1 지방	섬유	펄프, 화학제품
전주 제2 지방	기타 기계	펄프, 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계
전주 제3 지방	자동차	화학제품, 조립금속
군산 지방	비금속, 1차금속	음·식료품, 화학제품
익산 제2 지방	자동차	섬유, 화학제품, 조립금속, 전자통신
정읍 제1 지방	의료, 목재	음·식료품
정읍 제2 지방	기타기계, 음·식료품	섬유, 조립금속
정읍 제3 지방	펄프, 기타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주 : 대표업종은 단지 전체의 종업원 수 가운데 1/4 이상인 업종; 주요업종은 단지 전체의 종업원 수 가운데 10% 이상인 업종

등이 주요 업종이다. 특히 군산국가산업단지에는 대단위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많은 협력 업체들을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전미영, 1991). 익산 시에는 섬유와 보석가공이 수출자유지역의 주요 업종이고, 자동차 부문이 지방산업단지를 대표하고 있다. 군산, 익산, 전주 인접의 완주군 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대표 업종이 자동차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는 두 개의 대단위 자동차 조립공장과 함께 주변에 수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산재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경쟁력, 특히 자동차 부품이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 생산과정에 의한 비용 절감도 필요하지만, 혁신을 통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Waite, 1993). 세 곳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생산의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정책적 의미

지난 30여년 동안 전북의 산업단지 입지 선정과 개발은 대다수 주변 지역의 경험처럼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주도되었다. 국가 특히 중앙정부는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직접 생산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다(Amsden, 1989; Markusen and Park, 1993; Brohman, 1996). 이러한 여건에서 경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둔 과거의 국가 정책이 공업활동과 산업기반 시설이 열악하였던 전북 지역을 국가의 공업개발 중심에서 제외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던지 모른다. 하지만 지속되는 투자재원의 편중으로 야기된 지역간 불균형은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의문시하면서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공간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정치적 주변부에서 국가의 공업발달 중심에서 제외되었던 전북지역이

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변화에 의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간 균형 발달을 위한 정책 실행에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국내의 경제상황이 악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산업 구조재편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기존 산업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 투자가 이용되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증대에 대한 희망이 커지면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전북지역의 입지적 유리함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1990년대 전북에서는 거대한 군장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몇 개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지만, 이 기간에는 새로운 입지보다는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들의 개발을 완료하고 정착화 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북 지역의 산업단지는 단순히 경제적 근거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개별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입지결정에 의하기보다는 국가의 발전 전략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개발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 산업단지의 입지 선정이 입주할 생산 기업의 의사와는 비교적 무관하다는 사실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의 거래비용 경제와 분업의 이익보다는 값싼 부지 확보와 생산을 위한 하부구조 이용성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는 것이다(Hong, 1997). 따라서 다른 지역에 유사한 생산비용 수준의 단지가 조성될 때, 시장의 접근성, 외부 관계 등 기업을 유인하는 다른 요인이 중요하게 되며, 이들 요인이 유리한 지역의 산업단지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전북의 산업단지가 198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 지정 조성되었지만, 그 개발 속도가 느리고, 조성 후 장기간 분양 입주가 활발하지 못하였음은 국가 공업발달의 중심부에 있거나 그곳에 인접하였

던 산업단지보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서 경쟁력이 약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입지의 적합성이 의문시 되는 전북의 산업지구가 성공적이 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 배경을 이해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가 비교적 정착화 되고,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한 1990년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특히 제조업 발달과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 보았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업 의존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는 지역의 공업화를 주도함으로써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야기되고 있는 재구조화가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제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과거 전북 제조업의 대표 부문이었던 노동집약형인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자본집약 부문인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 산업단지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1차금속, 조립금속, 기타 기계 등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취약하였던 업종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종들은 목재와 같이 과거 주력 업종보다 기술혁신과 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최근 주목 받는 마샬의 산업지구 이론의 핵심 주장과 관련하여 이 지역 산업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연구를 맺는다. 마샬의 산업지구에 대한 높은 흥미는 유연적 전문화가 활발한 여건에서 산업지구가 학습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한다는 점이다(Amin, 2000). 이를 위해 지역 내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희박한 저개발 지역에서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책 개발은 관심을 끝만하다(Cooke, 1999; Harrison, 1992).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지역은 자율성 갖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공업발전을 유도하면서 산업지구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대부분 산업단지는 마살의 산업지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지역에 뿌리내린 소기업이 주축을 이루기 보다는 대단위 분공장들과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박삼욱, 1994; Markusen, 1996). 따라서 단지 내의 기업간 협력관계보다는 외부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형적 분공장 경제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러한 유형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의 공장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분공장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 내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 밖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산업단지의 선도 기업은 주변 공급기업과 협력관계를 통해 지식 전파를 주도하며 통제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Albino, 1999). 예를 들면, 군산과 전주의 산업단지들 내에 입주한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주변에 하청 기업들과의 거래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연성과 지역 내에 뿌리내림에 대한 기대가 크다(전미영, 1991). 이들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의 기업들 간에 협력관계와 신뢰 구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록 지역 내의 자생기업의 발전이 지역 성장과 경쟁력 확

보에 주요한 열쇠라는 견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자생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외부와의 연계가 좀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Potter, 1993; Markusen, 1996). 이러한 면에서 지방 정부는 경제 및 고용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인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전형적 분공장 경제 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투자 정책이 좀더 성공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기업체로 구성된 산업지구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없다(Amin, 2000). 유연적 전문화에 의한 소기업 기반의 신산업지구의 발달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주장도 있지만(Brusco, 1989), 새로운 생산체계에 적합한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지구가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Harrison, 1992). 양극화되고 있는 두 주장의 진위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산업지구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알기 위한 연구가 산업지구별로 밀도 있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여기서 산업단지는 공단을 의미한다. 공단은 산업지구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공단 내의 기업들이 하부 구조를 공유하는 한계를 초월하여 관련(연계)성이 연장되지 않는 형태이다. 반면에 산업지구는 구조론에서 쉽게 발견되었던 형태로 단지 내의 핵심이 되는 주요 기업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기업들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연계되는 앙상블의 형태이다(Bale, 1974b). 정부는 1996년 이후부터 이제까지의 모든 공단을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부르도록 결

정하였다. 따라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은 각각 국가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바뀌었다.

- 2) 원도연(1995)는 의한 이리,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비교 연구에서 이리의 상대적 부진을 논하면서, 이리 수출자유지역의 입지결정은 합리적이 아니라 호남 지역의 정치적 배려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 3) 이처럼 공업입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공업단지 형태가 전국에 산재되어 출현하면서 종합적인 공업입지 정책의 필요성에서 1990년 이들 법을 통합 개편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공업단지를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의 세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각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95년 12월 29일부터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칭하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국토개발연구원, 1998, 국토총서, 국토개발연구원 [CD-ROM].
- 김 견, 1991,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조정," 사회경제평론 3, pp.9-63.
- 박삼욱, 1994,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29(2), pp.117-136.
- 백영기·박임구·장재우, 1993, "농공지구 입지분석: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연구 9(2), pp.103-119.
- 백영기·김진석, 2000, "전북 제조업의 성장과 공간적 발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2), pp.5-22.
- 원도연, 1995,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정책적 기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호남사회연구 2, pp.353-367.
- 전미영, 1991, "군산공업단지의 공업구조와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6, pp.68-98.
- 최병두,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지 29(2), pp.137-165.
- 한국토지개발공사, 1988, 공업단지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토지개발공사.
- Albino, V., Garavelli, A.C. and Schiuma, G., 1999, "Knowledge transfer and inter-firm relationships in industrial districts: the role of the leader firm," *Technovation* 19, pp.53-63.
- Amin, A., 2000, "Industrial districts," in Sheppard, E. and Barnes, T.J. (ed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Oxford: Blackwell, pp. 149-168.
-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Press.
- Bale, J. R., 1974, "Toward a definition of the industrial estate: a note on a neglected aspect of urban geography," *Geography* 59, pp.31-34.
- Bale, J. R., 1974a, "Toward a geography of the industrial estate," *Professional Geographer* 26(3), pp.291-297.
- Brohman, J., (1996) "Postwar development in the Asian NICs: Does the Neoliberal model fit reality?" *Economic Geography* 72(2), pp.107-130.
- Brusco, S., 1989, "A policy for industrial districts," in Goodman, E., Bamford, J. and Saynor, P. (eds.),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London: Routledge, pp.259-269.
- Chandra, R., 1992,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Routledge.
- Chowdhury A. and Iyanatul I. (eds.), 1993, *The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of East Asia*, London: Routledge.
- Chung, Jin-yong, 1990, "South Korean strategies for dynamic transformation: 1961-88," in Lim Gill-Ghin and Chang Wook (eds.), *Dynamic Transformation: Korea, NICs and Beyond*,

- Seoul: Myung-Bo Publishing, pp.37-51.
- Cooke, P., 1999, "The co-operative advantage of regions," in Barnes, T.J. and M.S. Gertler (eds.), *The New Industri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pp.54-73.
- Goodman, E., Bamford, J. and Saynor, P. (eds.), 1989,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London: Routledge.
- Harrison, B., 1992, "Industrial districts: old wine in new bottles?" *Regional Studies* 26(5), pp.469-484.
- Hong, Ki-yong, 1997, "Regional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Regional Studies* 31(4), pp.417-423.
- Markusen, A. and Park, S. O., 1993, "The state as industrial locator and district builder: the case of Changwon, South Korea," *Economic Geography* 69(2), pp.157-181.
- Markusen, A. R., 1996, "Sicky places in slippery space: a typology of industrial districts," *Economic Geography* 72(3), pp.293-313.
- Norcliffe, G. B., 1985, "The industrial geography of the Third World," in Pacione, M. (ed.) *Progress in Industrial Geography*, London: Croom Helm, pp.249-283.
- Potter, J., 1993, "External manufacturing investment in a peripheral rural region: the case of Devon and Cornwall," *Regional Studies* 27(3), pp.193-206.
- Pratt, A. C., 1994, *Uneven Re-production: industry, space and society*, Oxford: Pergamon.
- Robinson, R., 1985, "Industrial strategies and port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sian cas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76(2), pp.133-143.
- Scott, A. J., 1992, "The role of large producers in industrial districts: a case study of high technology systems houses in southern California," *Regional Studies* 26(3), pp.265-276.
- Waite, G., 1993, "Say bye to Hyundai and hi to Korean autoparts? restructuring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n the 1990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84 (3), pp.198-206.

On the Location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Chonbuk Province

Yeong-Ki Beck*

*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ykbeck@moak.chonbuk.ac.kr)

Abstract : In Korea, as the state has played a vital role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e location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have not been merely decided by economic factors but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as well. The loc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in Chonbuk province has not been decided by industrial enterprises to be located there, but by investment strategies of the state.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Chonbuk could not attract a large-scale major complex because it had relatively inferior infrastructure for industry and uneasy access to overseas export markets, as compared to the capital region or the Southeast region of the country, and it has been left behind as a periphery in the national industrial system. Since 1980, the spatial policies for lessening regional disparities had mu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is province. The industrial complex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n this region have also great influenced on structural changes of manufacturing as well a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regional economy. Especially, capital goods manufacturing tends to increase in this region as the development of sectors required relative higher skill and technology mainly occurs in these complexes. And where the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es are located greatly influences the locational patterns of manufacturing in this province. The pattern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this region have concentrated in Chonju, Iksan, and Kusan, which are the largest cities in this province. Given these three cities to be very closely proximate, it seems to be easy to build network between them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activities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Chonbuk, industrial complex, Location of industrial complex, Role of state, Spatial policy, Manufacturing, Spatial concentration